

‘한류’의 흐름에서 광주의 대중문화를 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동 주최 8월18일까지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 특별전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미디어아트가 관객을 맞는다.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로 안쪽에는 전 세계에서 K팝을 즐기거나 따라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구성된 화면이 비치돼 있다. 한류 현상을 전 세계적인 관점과 지역의 관점에서 두루 아우르려는 의도로 입힌다.



1950~70년대 대중문화 음반들.

심을 드러내는 김구 선생의 문구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김구, ‘백범일지’, 1947)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에서 열고 있는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전. 지난 20일 개막해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한류’를 모티브로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던 전시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경화 관장은 “한류의 태동과 이후 확장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뒀다”며 “특히 다채로운 한류의 흐름에서 보석 같은 광주의 대중문화도 만나볼 수 있도록 다수의 지역 자료들도 선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한국 대중문화 속 미국’에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대중문화를 볼 수 있다. 사실 현재 즐기는 우리의 대중문화는 상당부분 미국에서 유입됐다. 가깝게는 미국 팝음악은 지금의 K팝 만큼 흔하게 들린다. 음악감상실은 팝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구이기도 하다. 전시실에는 당시 세시봉에서 들려주던 음반들과 미 8군에서 활동했던 가수들, 현미를 비롯해 김시스터즈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 인기도 대단했다. ‘로마의 휴일’, ‘벤허’와 같은 영화는 인기를 끌었다. 또한 70년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8월 18일까지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전을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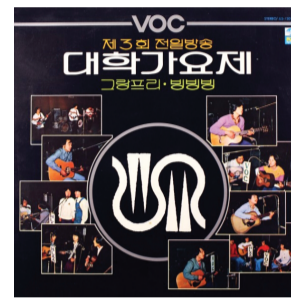


부터 유행한 드라마는 여가시간을 바꾸어놓은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저널리스트 가족은 물론 이웃집, 동네사람들이 모여 TV를 시청하던 모습은 일반적인 장면이었다.

2부 ‘아시아를 이은 흥공과 일본 대중문화’에서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흥공 영화 비디오테이프, ‘영웅본색’ 영화 포스터 등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일본 만화, 음악, 영화,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에게 흥공이나 일본의 작품은 중요한 참고 자료였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는 어떻게 세계인들을 때려시켰을까? 3부 ‘한국 대중문화에서 한류로’는 흔히 한류라고 말하는 음악, 드라마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현진영, 서태지, SES, 핑클 등 가수들의 자료도 나와 있다.

특히 오늘의 K팝이 한류로 우뚝 서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워커펀, PC통신 자료 외에 팬 문화 보여주는 도구들도 눈에 띈다. 풍선, 응원봉을 비롯해 스타들 공연 시 응원용 하거나 문구를 적는데 사용하는 도구들도 볼 수 있다.

예향광주의 대중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도 있다. 4부 ‘예향 광주의 대중문화’가 그것.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번성했던 극장문화, 무엇보다 전

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자료들이 관객들을 맞는다.

‘모모는 철부지’라는 가사로 친숙한 김만준의 ‘모모’는 제1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대상곡으로 사랑받았다. 광주 출신 가수 김연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요절 가수 김정호의 ‘하얀 나비’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를 배경으로 한 노래는 광주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전시는 한류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꾸몄다는 점이 특징이다. ‘랜덤 플레이 댄스’, ‘대박 노래방’, ‘인생 영화 한 컷’ 등은 세대를 떠나 한류를 즐길 수 있는 코너다.

한편 송기현 학예사는 “오늘의 한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실이 아니라 우리의 대중문화라는 도도한 흐름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 예향 광주가 지닌 대중문화와 한류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포를 영웅으로’ 클래식 명작들 울려 퍼진다

목포시향, 7월11일 시민문화센터

베토벤, 모차르트, 베르디 등의 클래식 명작들이 울려 퍼진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은 ‘목포를 영웅으로: Eroica’를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친다. ‘영웅(Eroica)’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비롯해 다양한 곡들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 서곡 및 아리아가 울려 퍼진다. 1282년경 성당의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 일어났던 시칠리아인들의 봉기 ‘시칠리아 만중 시간’을 모티브로 창작한 노래로, 13세기 후반 프랑스와 시칠리아의 정세를 악곡에 녹였다.

1855년 초연 당시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베르디가 평화 메시지를 녹여내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2022년 국립오페라단이 초연.

이어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경쾌하고 섬세한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목관악기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오보에 이윤정(경희대 교수), 클라리넷 조성호(강원대), 바순 이민



지난 제130회 정기연주회 ‘BRUCKNER’를 마친 뒤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목포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제공)

호(수원시향 수석) 및 호른 이석준(한예중) 등이 협연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대미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으로 장식한다. 베토벤 중기 시작을 알리는 걸작으로, 음악사 사상 최고의 교향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1악장의 격렬한 분위기에 이어 2악장의 ‘장송행진곡’, 3악장의 스케르초풍 전개가 영웅적인 주제와 감정을 잘 표현한다.

지휘는 성신여대 음대 교수이자 뮤즈윈드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김동수 지휘자가 맡는다.

김동수 지휘자는 “18, 19세기를 누승했던 오페라 서곡, 교향곡 등을 준비했다”며 “무더운 여름날 공연장을 찾아 잠시나마 아름다운 클래식의 낭만에 빠져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 예선, 최순옥 ‘합창’ 최우수상

2024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 예선대회에서 최순옥 씨(57)의 도자작품 ‘합창’(사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5일 진흥원 대세미나실에서 ‘제5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광역시 예선대회’ 수상작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예품대전 광주 예선대회는 전통 공예기술의 전승과 새로운 공예품 창작,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했다. 공모 부문은 ‘목질’,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합창’은 은은하면서도 담백한 느낌을 주는 도자 작품이다.

이번 예선대회는 모두 48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모두 24점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정재희 씨(52)의 ‘담다(도자)’, 박진영 씨(51)의 ‘지승 원형 합(종이)’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예선대회 시상식은 오는 8월 충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열리는 ‘제54회 대한민국공예

품대전’ 본선에 출품, 지역 공예품의 우수성을 겨루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예선대회에서 선정된 작품은 개별 장려금(시상금), 전문가 컨설팅, 빛고을현대미술재단에 참가 등 마케팅도 지원된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광주 예선대회는 전통 공예기술의 전승은 물론 새 공예품 창작, 상품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지역의 우수한 공예품이 앞으로 더욱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대들과 함께하는 사자길들이기 대작전’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11월까지 전국 15개 학교서 공연

전국 15개 학교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 공연의 향연.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대표 고현영)이 ‘광대들과 함께하는 사자길들이기 대작전’을 11월까지 전국 15개 초등학교에서 선보인다. 자타공인이 직접 개발한 ‘사자탈 만들기 키트’를 활용, 학생들이 가깝게 전통연희를 즐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7월 19일 광주 월곡초등학교 공연을 시작으로 24일 무안 현경초등학교, 9월 30일 광주 장덕초등학교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경기, 강원, 서울,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사자탈을 제작한 뒤 사자탈춤을 배우고, 출연진과 함께 ‘사자탈 길놀이’를 추게 된다. 이후 ‘진짜 강령사자탈춤’, ‘바람을 가르는 풍물놀이’, ‘광대들의 왕중왕전’ 등 전통연희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2024 신나는 예술여행사업’ 일환으로 펼쳐진다. 문화기반이 부족한 전국 각지를 찾아가 공연



학생들이 사자탈춤을 추는 모습. (자타공인 제공)

·전시를 선보이는 문화 향유 증진사업이다.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은 광주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전통예술 팀이 되고 싶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고현영 대표는 “호기심과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사자탈을 만들고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예술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예술 특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몸소 느끼고 체험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인원 1회 100명으로 확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어린이박물관 회차별 관람인원을 확대한다. 회차당 80명으로 운영하던 관람인원을 회차당 100명으로 확대한다. 1월 5회차까지 진행되며 1일 총 관람정원은 500명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도자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올해 1월 재개관했다. 이후 월 평균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만큼 인기가 높다. 이번 정원 확대로 더욱 편리하게 어린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별전시 ‘도자기, 풍류를 품다’(6월 21일~9월 22일)와 연계해 도자기 제작 체험이 진행된다. 타래 쌓기 기법을 활용한 체험은 어린이가 도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애령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이 도자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도자기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린이박물관 관람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어린이박물관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4인조 밴드 ‘SURL’이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7월 26일 광주예술의전당

록, 블루스 기반의 4인조 밴드 ‘SURL(설)’은 이야기가 있는 밴드로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밴드명은 이야기(說·설)를 영문 표기한 것으로, ‘내러티브가 있는 밴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기획공연 ‘ringringring’을 오는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젊은 세대와 소통에 초점을 두는 기획공연 포커스 일환으로, 밴드 ‘설’이 출연할 예정이다.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이제 눈앞으로 와 손에 닿을 거야/ Woo, Look at the moon-lights Shines on us”(‘Cilla’ 중에서)

서정적이면서 감각적인 노랫말은 젊은 세대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이 밖에도 사랑의 기타림과 좌절을 마른 꽃에 은유한 ‘Dry Flower’, 벽 안에 갇혀있는 듯한 공허한 마음과 희망을 노래하는 ‘The Lights Behind You’ 등 스토리가 돋보이는 노래들이 레퍼토리에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데뷔한 설은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대상, EBS ‘올해의 헬로루키 KOCCA 우수상’, CJ문화재단 ‘툼툼 21기’ 등에



밴드 ‘SURL’. 이한빈(베이스·왼쪽부터), 설호승(보컬·기타), 오명석(드럼) 및 김도연(기타).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선정되며 슈퍼 루키로서 존재감을 뽐내 왔다. 베이스에 이한빈, 기타·보컬에 설호승을 비롯해 오명석(드럼), 김도연(기타) 등 4인조로 이뤄져 있다.

2019년 싱글 앨범을 발매했으며 독일, 대만, 태국 등 해외 공연 러브콜을 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13개 도시를 누비는 북미 투어를 성료,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목을 끌었다. R석 3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